

## 겸업화와 은행의 경영성과: 66개국 상업은행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

이 재 화 (한국은행)  
곽 병 진 (KAIST)  
박 광 우 (KAIST)  
박 래 수 (숙명여대)\*

### < 요약 >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그룹화는 세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은행의 겸업화에 따른 수익구조 변화에 주목하여 비이자수익 부분의 확대가 은행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금융환경이 상이한 66개국 3,320개 상업은행(commercial banks)들의 1993~2007년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비이자수익 부분의 비중이 은행의 경영성과(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와 리스크(수지변동성, 부도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을수록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이자수익비중이 높아지면 수익기반이 강화되어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으며 수익성이 높아지면 내부유보도 활발하여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비이자수익 비중 증가는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수지의 변동성과 부도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본국가의 은행들을 법계통(legal origin)에 따라 분류해 분석하여도 스칸디나비아 법계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겸업화를 통해 은행의 수익구조가 다변화되어 여신 이외의 영업활동에서도 수익이 창출될 경우 부실여신을 통제할 유인이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비이자수익 비중 증가가 은행수지의 변동성을 높인다는 것은 비이자수익의 변동성이 이자수익의 변동성에 비해 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따라서 은행이 다양한 업무영역에 진출하여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건전성의 악화와 수지의 변동성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위험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단어: 상업은행, 겸업화, 비이자수익, 경영성과, 위험

\* 연락담당 저자.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2동 53-12 숙명여자대학교 경성대학 경영학부,  
140-742; E-mail: rs00@sm.ac.kr; Tel: 02-2077-7382; Fax: 02-710-9527.

투고일 2009-02-10; 게재확정일 2009-03-10

## 1. 서론

금융부문에 대한 각국의 규제완화는 은행간 또는 은행·비은행간 경쟁을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은행은 예금과 대출이라는 전통적인 수익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비이자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각국 은행산업의 수익구조는 비이자수익 비중의 확대라는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 미국 상업은행의 영업수익의 19%였던 비이자수익 비중은 2001년 43%로 증가하였으며(Stiroh, 2004), 유럽지역에서는 1989년 26%였던 비이자수익 비중이 1998년 41%로 증가하였다(ECB, 2000). 국내은행도 외환위기 이후 수수료 현실화, 수익증권 및 보험상품 판매 등 비은행 업무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면서 대형은행의 비예대부문 수익비중이 1998년 32.5%에서 2005년 45.4%로 증가하였다(박형근, 이상진, 김보성, 2006).

이러한 은행의 수익구조 변화에 대해 그간 학계 및 각국 정책당국은 금융안정을 위한 건전성감독 측면에서 겸업화가 은행의 경영성과와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심과 그에 따른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형화 및 겸업화 등으로 금융기관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효과적인 금융감독이 어려워지는 반면 겸업화로 은행의 리스크 노출정도는 오히려 커지면서 부실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겸업화가 금융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적이다.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면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통해 리스크가 분산되는 효과도 기대되는 반면,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업무에 주로 진출하면서 리스크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금융환경을 가진 66개 국가들의 상업은행들을 대상으로 겸업화가 은행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66개 표본국가의 은행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을수록 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내자료를 이용한 강종구(2006)나 박광우, 박현성(2007)의 연구결과를 전세계국가 상업은행 자료로 확대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비이자수익비중이 높아지면 수익기반이 강화되어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으며 수익성이 높아지면 내부유보도 활발하여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비이자수익비중 증가는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수지의 변동성과 부도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업화를 통해 은행의 수익구조가 다변화되어 여신 이외의 영업활동에서도 수익이 창출되므로 부실여신을 통제할 유인이 적어지는 것으로 이해되며, 비이

자수익 비중 증가가 은행수지의 변동성을 높인다는 것은 비이자수익의 변동성이 이자수익에 비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은행이 다양한 업무영역에 진출하여 안정적인 수익성 제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건전성의 악화와 수지의 변동성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위험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거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표본은행들을 국가별 법계통(legal origin)에 따라 분류해 분석하여도 스칸디나비아 법계를 제외하고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서론 이후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면서 본 연구가 기존연구를 어떻게 연장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실증분석에 필요한 가설을 도출하였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 및 연구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 4장에서는 비이자수익 비중 증가가 은행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 2. 문헌연구 및 실증가설

### 2.1 기존문헌 연구

겸업화 전략에 따른 비이자수익 비중 증가가 은행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연구는 대체로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비이자수익이 은행의 경영성과를 직접적으로 개선시키는지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경영성과지표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둘째, 은행 수지의 변동성 또는 이를 기초로 작성된 리스크지표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는 겸업화에 따른 위험분산효과로 은행의 도산가능성이 감소하는지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먼저 비이자수익 증가가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문헌을 살펴보면 민상기, 설원식(1999)은 은행의 규모, 유형, 국적이 다르더라도 은행이 겸업화를 추구하는 것이 특정 업무에 전업하는 것에 비해 보다 높은 경영성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강종구(2006)는 금융안정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에서 겸업화에 따른 비이자수익비중 증가가 은행의 수익성과 유동성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박광우, 박현성(2007)은 은행이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하여 안정성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겸업화를 통해 은행의 수익구조가 다변화 되면 여신 이외의 영업활동에서도 수익이 창출되므로 무수익여신을 통제할 유인이 적어져 은행의 자산건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상기 외 2인(2007)

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이 유입된 아시아 5개국 은행에 대한 경영성과 분석에서 비이자수익 비중이 은행의 수익성과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실증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이자수익 비중의 증가가 은행의 수익변동성 내지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은행의 비은행업무 진출이 활발했던 미국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Boyd et al.(1980)은 1970년대 은행과 비은행 자회사의 포트폴리오를 기초로 겸업의 효과를 재연(simulation)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은행 업무에서는 업무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감축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Kwast(1989)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은행업무와 비은행업무의 조합비율을 찾는 연구에서 겸업화가 어느 정도 리스크 감소효과를 보인다고 보았다. Gallo et al.(1996)은 은행업무와 뮤추얼펀드 판매업무의 겸업이 수익성을 높이고 수익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분산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oyd et al.(1993)은 은행지주회사와 보험회사 간의 합병은 위험을 감소시키는 반면 증권회사와의 합병은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과 달리 은행업무와 비이자수익 부문의 결합이 분산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은행의 리스크를 증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Boyd and Graham(1986)은 1970년대 금융지주회사의 비은행업무 확대가 은행의 부도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Demsetz and Strahan(1997)은 1980~1993년중 금융지주회사의 주가수익률 분석을 통해 은행들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감축은 관찰되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은행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영업부문으로 진출하면서 자기자본 확충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Kwan(1998)은 1990~1997년중 미국의 은행부문 20개 자회사를 분석한 결과 은행의 수익성은 증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변동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DeYoung and Roland(2001)은 1988~95년중 미국 상업은행에 대한 연구에서 수수료기반의 영업이 수익성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수수료기반의 영업활동이 은행수익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Stiroh(2004)는 1984~2001년중 비이자 영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 은행들의 겸업화의 잠재적인 이익을 평가하였는데 순이자수익과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비이자수익간의 상관관계가 점진적으로 높아져 겸업화에 따른 위험분산효과가 감소하고 있을 보여주었다. 또한 Stiroh and Rumble(2006)도 1997~2002년중 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연구에서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겸업화에 따른 리스크 분산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은행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이유에 대해 DeYoung and Roland(2001)는 세 가지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비이

자수익이 이자수익보다 큰 변동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대출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비이자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이는 대출관계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데는 은행 및 대출자 모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여 거래관계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비이자 수익과 관련된 거래관계는 변경 또는 종료가 대출에 비해 용이한 데 기인한다. 둘째, 비이자 수익활동의 확대가 은행의 고정비용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대출관계는 일단 성립이 되면 추가적인 대출에서 발생하는 한계비용이 이자비용에 제한되는 반면 은행이 비이자수익 부문에 진출하는 데는 인적, 물적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셋째, 은행 감독기관이 비이자 수익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유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leverage)가 가능해 수익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Stroh(2004)는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의 상관관계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핵심고객에 대한 다양한 상품의 교차판매로 더 많은 상품이 같은 고객에게 판매됨으로써 위험분산효과가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은행이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수익을 다변화하는 것이 반드시 은행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고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며 은행의 경영특성과 비이자수익부문의 종류에 따라서 수익성과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겸업화에 대한 기존연구를 두 가지 관점에서 확대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비이자수익비중 확대가 은행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분야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은행의 수지변동성 및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둘째, 기존연구가 주로 미국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특정 국가 내지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세계 66개 국가를 포괄함으로써 분석대상을 확대하였다.

## 2.2 실증가설

은행이 어떤 수익구조를 가지느냐는 은행의 경영성과와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의 수익다변화가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수익성 측면에서 은행이 다양한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수익이 다변화되면 영업규모가 확대되고 동일한 은행내에서 여러 상품이 취급되는데 따른 시너지효과가 발생하여 단위당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상품다양화로 윈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잠재고객층이 확대됨으로써 수익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 반면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정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신진영, 이민환, 2007).

들째,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비이자수익 창출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면 내부유보도 활발하여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박광우, 박현성, 2007). 이에 반해 은행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영업부문으로 진출하면서 자기자본 확충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경향다고 보는 상반된 견해도 있다(Demsetz and Strahan, 1997). 셋째, 은행이 비이자수익을 위해 전통적인 대출 이외의 영업활동에 주력하게 되면 대출에서 발생하게 되는 부실여신을 통제할 유인이 적어져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박광우, 박현성, 2007). 따라서 수익다변화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되어 그 방향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귀무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은행의 수익다변화는 은행의 경영성과(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은행의 수익다변화가 은행의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은행의 수익이 다양해지면 수익부문 상호간 분산효과가 발생하여 은행수지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축소되어 리스크가 감소할 수 있다. Diamond(1984)는 금융기관이 다양한 자산들을 보유함으로써 다각화를 통해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위험분산효과(risk sharing)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Stiroh(2004)는 순이자수익과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비이자수익간의 상관관계가 점진적으로 높아져 겸업화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은행이 수익을 다변화 하면서 변동성이 심한 고위험 부문에 진출한다면 수익의 변동성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비이자 수익비중 증가가 은행의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나 그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귀무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2: 은행의 수익다변화는 은행의 리스크(수지변동성, 부도위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 실증분석 자료 및 연구방법

#### 3.1 자료 및 표본 선정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66개국 3,320개 상업은행들(commercial banks)로 구성된다.

개별은행에 대한 자료는 BUREAU VAN DIJK사의 Bankscope에서 입수하였으며, 1993~2007년중 각 연도별 재무자료를 사용하였다.

최종표본은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Bankscope에서는 전세계 7,006개<sup>1)</sup> 상업은행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 중 연구대상기간중 총자산 평균이 1억달러 미만인 은행 및 각 변수별 관측치가 3개 이하인 은행을 각각 제외하여 최종 표본으로 3,320개 은행을 선택하였다. 또한 자료의 이상치(outlier)를 처리하기 위해 각 변수별 관측치는 분포의 양쪽 끝 1%에서 상위 99% 이상을 99% 수치로, 하위 1% 이하를 1% 수치로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표본은행을 규모별<sup>2)</sup>로 나누어 보면 소형은행이 1,677개이며 대형은행이 1,643개이다. 법계통(legal origin)<sup>3)</sup>별로 보면 영미법계(English legal origin) 852개, 프랑스법계(French legal origin) 1,173개, 독일법계(German legal origin) 670개, 스칸디나비아법계(Scandinavian legal origin) 106개, 사회주의법계(Socialist legal origin) 519개 등으로 다양한 금융환경을 가진 은행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록 1>은 표본은행의 법계통별 규모별 현황을, <부록 2>는 국가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 3.2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비이자 수익비중이 높은 은행과 낮은 은행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룹간 평균을 비교하였으며(univariate mean tests), 은행의 수익구조변화가 경영성과와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 3.2.1 그룹간 평균비교

그룹간 평균비교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먼저 표본은행을 연구대상기간(1993~2007년)중 각 은행의 영업수익대비 비이자수익 비중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렬한 다음 4분위(75%tile 이상) 그룹을 겸업화 은행으로, 1분위(25%tile 이하) 그룹을 비겸업화 은행으로 구분하였다. 그런 다음 각 은행그룹의 경영특성지표, 경영성과지표, 수지변동성 및 리스크 지표의 평균을 구하여 은행그룹간의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1) 자회사의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Unconsolidated Statement 기준이다.

2) 대형은행과 소형은행은 분석대상 기간중 평균 총자산 규모 10억 달러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Bankscope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며, Carter and McNulty(2005)의 분류기준이기도 하다.

3) 법계통별로는 La Porta et al.(1998)의 방법에 따라 분류하였다.

### 3.2.1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은행의 수익구조가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은 회귀식 (1)~(3)의 다중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은행  $i$ 의 각 성과지표이며, 설명변수중  $NONII$ 는 은행  $i$ 의 영업수익대비 비이자수익 비중이다. 그리고 통제변수(control variable)로는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총자산증가율, 총자산대비 대출비중, 총자산대비 예금비중, 총자산대비 인건비비중, 순이자마진 등을 고려하였으며 통제변수의 최종 선택은 변수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총자산증가율( $GRTA$ ), 총자산( $LOGTA$ ), 순이자마진( $NIM$ )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성과변수 상호간의 관계를 보면 자산건전성이 수익성에, 수익성은 자본적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강중구, 2006), 수익성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 자산건전성 지표들, 자본적적성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 수익성을 설명변수에 각각 포함하였다.  $DumCON$ 은 각 은행이 속한 국가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더미변수(dummy variable)이다.

$$EQUITY_i = \alpha + \beta_1 NONII_i + \beta_2 GRTA_i + \beta_3 LOGTA_i + \beta_4 NIM_i + \beta_5 ROE_i + \delta_j DumCON_{ji} + \epsilon_i \quad (1)$$

$$LLP_i = \alpha + \beta_1 NONII_i + \beta_2 GRTA_i + \beta_3 LOGTA_i + \beta_4 NIM_i + \delta_j DumCON_{ji} + \epsilon_i \quad (2)$$

$$ROE_i = \alpha + \beta_1 NONII_i + \beta_2 GRTA_i + \beta_3 LOGTA_i + \beta_4 NIM_i + \beta_5 LLP_i + \delta_j DumCON_{ji} + \epsilon_i \quad (3)$$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연도별 표본은행의 수와 구성이 달라지는 불균형 패널자료(unbalanced panel data)이다. 이 경우 은행별, 연도별 자료를 단순히 통합(pooling)하여 회귀분석할 경우 잔차의 횡단면상관관계(cross-correlation)<sup>4)</sup>를 감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잔차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sup>5)</sup>로 인해 회귀계수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s)에 편의(bias)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Fama and French,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Fama and MacBeth(1973)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연구대상기간(1993~2007년)중 각 은행의 변수별 연평균값을 이용한 횡단면 회귀분석과 연도별 더미변수를 추가한 횡단면 회귀분석도 병행하였다.

은행의 수익구조가 수지변동성 및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은 회귀식 (4)의 다중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종속변수(RISK)는 수지변동성 및 리스크지표이며 각 설명변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동 분석에서는 종속변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Lepetit et al.(2008)에서와 같이 연구대상기간(1993~2007년)중 각 은행

4) 특정 연도에 은행들간 잔차에서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5) 특정 은행의 연도별 잔차에서 나타나는 자기상관을 의미한다.



의 변수별 연평균 값을 이용한 횡단면분석을 실시하였다.

$$\overline{RISK}_i = \alpha + \beta_1 \overline{NONLI}_i + \beta_2 \overline{GRTA}_i + \beta_3 \overline{LOGTA}_i + \beta_4 \overline{NIM}_i + \delta_j \overline{Dum CON}_{ji} + \epsilon_i \quad (4)$$

### 3.3 변수의 정의

은행의 겸업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Stiroh(2004)에서와 같이 은행의 수익구조 측면에서 접근하여 영업수익대비 비이자수익 비중을 택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로는 총자산의 자연대수값(LOGTA), 총자산증가율(GWTA), 총자산대비 대출비중(LOAN), 총자산대비 예금비중(DEPOSIT), 순이자마진(NIM), 총자산대비 인건비 비중(PERES) 등을 고려하였다. 이들 변수 가운데 총자산대비 인건비비중, 총자산대비 대출비중, 총자산대비 예금비중 등의 경우 여타 설명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은행의 경영성과 지표로는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건전성 평가시 주로 사용하는 CAMEL<sup>6)</sup>형 변수를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대리변수는 강종구(2006)를 참조하여 자본적정성 지표로 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EQUITY), 자산건전성 지표로 대출금대비 대손충당금 비율(LLP), 수익성지표로 자기자본순이익율(ROE)를 사용하였다.

은행수지의 변동성 및 리스크 지표로는 은행의 재무자료에 기초한 리스크 지표인 자기자본수익률의 표준편차(SDROE)와 Z-score(ADZ)<sup>7)</sup>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Lepetit et al.(2008)의 최근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와 유사하다.

<부록 3>은 실증분석시 고려된 각 변수의 정의와 산출방식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각 변수별 기술통계량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 4. 실증분석 결과

### 4.1 수익구조별 특성 분석

비이자 수익비중이 높은 은행은 비이자 수익비중이 낮은 은행과 비교하여 어떤 특성

6) CAMEL은 각각 Capital adequacy, Asset quality, Management, Earnings and profitability, Liquidity를 의미한다.

7)  $ADZ = (100 + average ROE) / SDROE$ 로 측정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낮은 리스크를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Boyd and Graham(1986)을 참조할 수 있다.

<표 1> 변수별 기술통계량

변수명	평균	최대값	3사분위수	중위수	1사분위수	최소값	표준편차
총자산규모	13.92	20.94	15.03	13.62	12.52	9.29	1.78
총자산증가율	26.14	273.00	29.53	14.22	6.19	-16.32	41.51
비이자수익비율	34.49	109.26	46.71	31.30	18.95	-30.85	21.47
대출비율	51.78	96.72	67.82	54.98	37.42	0.26	21.96
예금비율	70.12	95.62	84.48	76.20	62.45	1.94	20.15
인건비비율	1.63	8.64	2.10	1.35	0.79	0.02	1.25
순이자마진	4.07	19.77	5.02	3.41	1.91	0.18	3.30
자기자본비율	11.55	68.77	13.67	9.17	6.46	1.47	8.42
대손충당금비율	1.52	30.75	1.79	0.83	0.37	-3.50	2.23
자기자본수익률	9.52	64.91	15.74	9.22	3.65	-66.45	11.14
자기자본수익률의 표준편차	10.09	73.84	13.19	6.60	3.47	0.00	9.94
Z-score	25.59	167.11	31.17	16.92	8.55	1.75	27.81
관측치수	3,320	3,320	3,320	3,320	3,320	3,320	3,320

을 가지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표본은행을 영업수익대비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은 겸업화 은행과 낮은 비겸업화 은행으로 구분하여 은행그룹간의 평균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표 2>과 <표 3>에 정리하였다.

경영특성 측면에서 볼 때 비겸업화 은행에 비해 겸업화 은행이 자산증가율이 높고 간접비 비중이 높은 반면, 전통적인 예대부문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증가율 측면에서 겸업화 은행의 총자산 증가율이 비겸업화 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겸업화은행이 비겸업화 은행에 비해 자산규모 확대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겸업화 은행의 총자산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겸업화에는 고정비용 증가가 수반된다는 DeYoung and Roland(2001)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겸업화 은행의 총자산대비 대출비율은 39.42%, 예금비율은 64.54%로 비겸업화 은행에 비해 각각 20.22%p, 8.18%p 낮았는데, 이는 겸업화로 인해 전통적인 예금대출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음을 보여준다.

경영성과 측면에서 겸업화 은행이 비겸업화 은행에 비해 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성은 양호하였으나 자산건전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겸업화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14.04%로 비겸업화 은행(10.76%)에 비해 3.28%p 높아 자본적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겸업화 은행은 ROE가 각각 12.42%로 비겸업화 은행(8.36%)에 비해 높게 나타나 수익성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손충당금 비율은 겸업화 은행이

<표 2> 검업화 은행과 비검업화 은행간 경영특성 비교

변수명	검업화은행	비검업화은행	평균차	t-value	중위수차	z-value
총자산증가율	33.18	23.99	9.20	4.047***	6.26	5.40***
비이자수익비율	64.15	10.23	53.92	100.175***	52.75	24.96***
대출비율	39.42	59.64	-20.22	-18.497***	-20.81	-15.63***
예금비율	64.54	72.72	-8.18	-7.536***	-8.14	-8.11***
인건비비율	2.21	1.14	1.07	17.047***	0.92	16.11***
순이자마진	3.06	4.59	-1.52	-8.954***	-1.08	-8.67***
관측치수	830	830				

주: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표 3> 검업화 은행과 비검업화 은행간 경영성과 및 리스크 비교

변수명	검업화은행	비검업화은행	평균차	t-value	중위수차	z-value
자기자본비율	14.04	10.76	3.28	7.590***	2.70	8.39***
대손충당금비율	2.05	1.24	0.81	6.459***	0.54	7.49***
자기자본이익률	9.87	8.36	1.51	2.601*	1.78	3.19***
자기자본이익률의 표준편차	12.42	8.64	3.78	7.857***	3.78	7.86***
Z-score	19.09	30.12	-11.03	-8.391***	-7.45	-9.19***
관측치수	830	830				

주: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2.05%로 비검업화 은행(1.24%)에 비해 높아 자산건전성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지변동성 측면에서는 검업화 은행의 ROE의 표준편차가 12.42%로 비검업화 은행(8.6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은행의 수익성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스크지표에서도 검업화 은행의 Z-score가 19.09로 비검업화 은행(30.12)에 비해 낮아 도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지역 은행을 대상으로 한 Lepetit et al. (2008)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 4.2 은행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비이자 수익비중이 은행의 경영성과와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 경영성과지표와 리스크지표를 종속변수로 하고 총자산규모, 비이자수익 비중, 순이자마진 등 은행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설명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2.1 자본적정성

수익다변화가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본적정성의 측정치로 자기자본비율을 이용하였다. <표 4>에서는 이 검증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자본비율은 비이자수익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은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이자마진이 클수록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규모가 큰 은행이 대마블사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소형은행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강종구(2006)의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을수록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은행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영업부문으로 진출하면서 자기자본 확충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Demsetz and Strahan(1997)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아지고 이자마진이 확대되어 수익성이 개선되면 내부유보도 활발하여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에서는 동일한 분석을 법계통별로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스칸디나비아법계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표 4>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자본적정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자기자본비율			
독립변수	방법 ① (연도별 더미변수 추가)	방법 ② (변수별 연평균값 이용)	방법 ③ (Fama-MacBeth 방식)
상수항	37.341 (81.783)***	29.820 (22.303)***	33.698 (12.843)***
비이자수익비율	0.045 (23.515)***	0.088 (13.410)***	0.052 (5.904)***
총자산증가율	-0.000 (-0.390)	0.021 (6.935)***	-0.001 (-0.429)
총자산규모	-1.912 (-74.129)***	-1.647 (-19.423)***	-1.822 (-14.243)***
순이자마진	0.225 (24.121)***	0.621 (10.852)***	0.345 (5.335)***
자기자본수익률	-0.016 (-5.685)***	-0.092 (-6.961)***	-0.032 (-2.131)**
Adj R <sup>2</sup>	0.206	0.331	0.218
관측치수	31,125	3,320	15

주: 1) 방법 ①은 연도별 더미변수를 추가한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를, 방법 ②는 변수별 연평균 값을 이용한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를, 방법 ③은 Fama-MacBeth의 방식에 의한 추정결과임.  
 2) ( )내는 t통계량임.  
 3)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표 5> 자본적정성에 대한 법계통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중속변수: 자기자본비율					
독립변수	영미법계	독일법계	프랑스법계	스칸디나비아법계	사회주의법계
상수항	27.295 (11.693) <sup>***</sup>	28.217 (9.056) <sup>***</sup>	30.903 (15.391) <sup>***</sup>	23.387 (5.328) <sup>***</sup>	30.167 (6.994) <sup>***</sup>
비이자수익비율	0.137 (10.004) <sup>***</sup>	0.126 (9.316) <sup>***</sup>	0.041 (3.919) <sup>***</sup>	-0.005 (-0.217)	0.041 (1.898) <sup>*</sup>
총자산증가율	0.019 (3.400) <sup>***</sup>	0.010 (1.039)	0.029 (6.166) <sup>***</sup>	0.066 (7.604) <sup>***</sup>	0.000 (0.088)
총자산규모	-1.582 (-10.148) <sup>***</sup>	-1.754 (-8.707) <sup>***</sup>	-1.767 (-13.599) <sup>***</sup>	-1.266 (-4.766) <sup>***</sup>	-1.221 (-3.979) <sup>***</sup>
순이자마진	1.141 (7.779) <sup>***</sup>	0.801 (3.068) <sup>***</sup>	0.383 (5.089) <sup>***</sup>	0.908 (2.957) <sup>***</sup>	0.532 (4.238) <sup>***</sup>
자기자본수익률	-0.227 (-7.083) <sup>***</sup>	-0.104 (-2.770) <sup>***</sup>	-0.016 (-0.928)	0.002 (0.041)	-0.239 (-6.986) <sup>***</sup>
Adj R <sup>2</sup>	0.352	0.335	0.355	0.564	0.249
관측치수	852	670	1,173	106	519

주: 1) 변수별 연평균값을 이용한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임.  
 2) ( )내는 t통계량임.  
 3)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 4.2.2 자산건전성

은행의 수익다변화가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다른 측정치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 비율을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표 6>에서는 이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대손충당금 비율은 비이자수익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수익다변화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겸업화를 통해 은행의 수익구조가 다변화되어 여신 이외의 영업활동에서도 수익이 창출되므로 무수익여신을 통제할 유인이 적어지는 것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박광우, 박현성, 2007). 또한 순이자마진이 작을수록 자기자본비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행이 고위험 대출을 늘릴 경우 순이자마진은 확대될 수 있으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표 7>에서는 동일한 분석을 법계통별로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스칸디나비아법계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표 6>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자산건전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대손충당금 비율			
독립변수	방법 ① (연도별 더미변수 추가)	방법 ② (변수별 연평균값 이용)	방법 ③ (Fama-MacBeth 방식)
상수항	1.941 (10.514)***	-0.151 (-0.396)	1.628 (3.378)***
비이자수익비율	0.014 (17.769)***	0.021 (11.443)***	0.018 (2.904)***
총자산증가율	-0.000 (-0.280)	-0.000 (-0.918)	-0.001 (-1.336)
총자산규모	-0.142 (-13.632)***	-0.067 (-0.864)	-0.112 (-3.640)***
순이자마진	0.146 (39.638)***	0.293 (18.424)***	0.206 (6.575)***
Adj R <sup>2</sup>	0.080	0.221	0.107
관측치수	29,476	3,320	15

주: 1) 방법 ①은 연도별 더미변수를 추가한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를, 방법 ②는 변수별 연평균 값을 이용한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를, 방법③은 Fama-MacBeth의 방식에 의한 추정결과임.  
 2) ( )내는 t통계량임.  
 3)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표 7> 자산건전성에 대한 법계통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대손충당금 비율					
독립변수	영미법계	독일법계	프랑스법계	스칸디나비아법계	사회주의법계
상수항	-1.111 (-2.667)***	3.593 (3.579)***	0.818 (1.282)	-0.123 (-0.175)	-1.914 (-1.603)
비이자수익비율	0.026 (10.849)***	0.023 (5.403)***	0.012 (3.756)***	0.004 (0.926)	0.029 (4.883)***
총자산증가율	0.001 (1.246)	-0.000 (-0.242)	-0.002 (-1.307)	-0.003 (-2.012)**	0.000 (0.269)
총자산규모	-0.070 (-2.589)***	-0.243 (-3.757)***	-0.035 (-0.847)	0.021 (0.527)	0.031 (0.269)
순이자마진	0.478 (19.073)***	0.164 (1.964)**	0.238 (10.032)***	0.186 (3.754)***	0.341 (9.829)***
Adj R <sup>2</sup>	0.451	0.072	0.223	0.218	0.209
관측치수	852	670	1,173	106	519

주: 1) 변수별 연평균 값을 이용한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임.  
 2) ( )내는 t통계량임.  
 3)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4.2.3 수익성

<표 8>에서는 은행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수익성을 자기자본수익률을 이용하여 은행의 수익 다변화가 경영성과(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자본수익률은 은행규모가 클수록,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을수록, 순이자마진이 클수록,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제고된다는 이러한 결과는 겸업화에 필요한 추가적인 고정비용 부담보다 다양한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얻는 범위의 경제와 은행규모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증가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국내은행의 경우 겸업화에 따른 비이자수익 비중 증가가 은행의 수익성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 강종구(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표 9>에서는 동일한 분석을 법계통별로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법계통 국가에서 <표 8>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8> 수익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자기자본수익률			
독립변수	방법 ① (연도별 더미변수 추가)	방법 ② (변수별 연평균값 이용)	방법 ③ (Fama-MacBeth 방식)
상수항	3.582 (4.071) <sup>***</sup>	-11.119 (-6.481) <sup>***</sup>	-2.920 (-3.221) <sup>***</sup>
비이자수익비율	0.083 (21.846) <sup>***</sup>	0.081 (9.439) <sup>***</sup>	0.103 (4.436) <sup>***</sup>
총자산증가율	0.000 (4.155) <sup>***</sup>	-0.003 (-0.766)	0.004 (2.156) <sup>**</sup>
총자산규모	0.225 (4.543) <sup>***</sup>	1.286 (12.005) <sup>***</sup>	0.426 (4.454) <sup>***</sup>
순이자마진	0.833 (46.230) <sup>***</sup>	1.287 (17.032) <sup>***</sup>	1.312 (3.606) <sup>***</sup>
대손충당금비율	-1.459 (-52.566) <sup>***</sup>	-1.000 (-12.644) <sup>***</sup>	-1.579 (-11.085) <sup>***</sup>
Adj R <sup>2</sup>	0.129	0.364	0.165
관측치수	29,467	3,320	15

주: 1) 방법 ①은 연도별 더미변수를 추가한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를, 방법 ②는 변수별 연평균 값을 이용한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를, 방법 ③은 Fama-MacBeth의 방식에 의한 추정결과임.  
 2) ( )내는 t통계량임  
 3)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표 9> 수익성에 대한 법계통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자기자본수익률					
독립변수	영미법계	독일법계	프랑스법계	스칸디나비아법계	사회주의법계
상수항	-10.061 (-4.064)***	-5.345 (-1.659)*	-21.897 (-6.933)***	-28.685 (-5.012)***	-30.153 (-5.691)***
비이자수익비율	0.064 (4.132)***	0.087 (6.263)***	0.053 (3.171)***	0.190 (5.393)***	0.130 (4.742)***
총자산증가율	-0.007 (-1.162)	-0.018 (-1.844)*	0.009 (1.282)	0.006 (0.519)	-0.011 (-1.222)
총자산규모	1.059 (6.539)***	0.443 (2.130)**	1.658 (8.167)***	2.052 (6.085)***	2.720 (7.393)***
순이자마진	1.938 (10.897)***	0.901 (3.374)***	1.364 (11.134)***	2.852 (6.624)***	1.237 (7.359)***
대손충당금비율	-1.069 (-5.211)***	-0.401 (-3.246)***	-1.446 (-9.906)***	-5.072 (-6.202)***	-1.291 (-6.515)***
Adj R <sup>2</sup>	0.433	0.261	0.321	0.466	0.267
관측치수	852	670	1,173	106	519

주: 1) 변수별 연평균 값을 이용한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임.

2) ( )내는 t통계량임.

3)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 4.2.4 수지변동성과 부도위험

은행의 수익다변화가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나타내는 수지변동성과 부도위험의 대응치로 자기자본수익률의 표준편차와 Z-score를 각각 이용하였는데, <표 10>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은행수지의 변동성은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을수록, 순이자마진이 클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자수익 비중 증가가 은행수지의 변동성을 높인다는 것은 비이자수익의 변동성이 이자수익에 비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순이자마진이 클수록 은행수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신용위험이 큰 고수익·고위험대출이 많아 경기변동시 부실발생 등으로 수익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은행 감독기관이 비이자 수익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유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가 가능해 수익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DeYoung and Roland(2001)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은행의 Z-score는 자산증가율이 낮을수록, 비이자수익 비중이 낮을수록, 이자마진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즉, 도산가능성이 낮아짐)으로 나타났다. 비이자수익 비중이 증가하



<표 10> 수지변동성 및 리스크지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기자본수익률의 표준편차	Z-score
상수항		0.184 (0.111)	56.152 (11.600)***
비이자수익비율		0.098 (12.135)***	-0.342 (-14.368)***
총자산증가율		0.005 (1.562)	-0.049 (-4.429)***
총자산규모		0.081 (0.793)	-0.510 (-1.689)
순이자마진		0.343 (4.965)***	-1.311 (-6.460)***
Adj R <sup>2</sup>		0.261	0.187
관측치수		3,320	3,320

주: 1) ( )내는 t통계량임.

2)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면 은행의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은 비이자수익의 증가로 은행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양 (+)의 효과보다 은행수지의 변동성 확대시키는 음(-)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비은행업무 확대가 은행의 부도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한 Boyd and Graham (1986) 등의 결과와 유사하다. 자산증가율이 높고 순이자마진이 높다는 것은 고위험 차주에게까지 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경기후퇴시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은행의 도산가능성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 5. 결론

본 논문은 은행의 겸업화에 따른 수익구조 변화, 즉 비이자수익 부문의 확대가 은행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환경이 상이한 66개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이자수익이 은행의 경영성과 및 수지변동성과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을수록 은행의 자본적정성, 수익성은 개선되는 반면 자산건전성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아지면 수익기반이 강화되어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으며 수익성이 높

아지면 내부유보도 활발하여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비이자 수익비중 증가는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수지의 변동성과 부도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겸업화를 통해 은행의 수익구조가 다변화되어 여신 이외의 영업활동에서도 수익이 창출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실여신을 통제할 유인이 적어질 수 있다. 또한 비이자수익 비중 증가가 은행수지의 변동성을 높인다는 것은 비이자수익의 변동성이 이자수익에 비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은행이 규모를 확대하고 수익을 다변화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은행이 다양한 업무영역에 진출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건전성의 악화와 수지의 변동성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위험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주로 미국이나 한국의 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한 데 반해 다양한 금융환경을 가진 66개국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결과를 일반화시켰다는데 본 연구의 가장 큰 공헌이 있다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강종구, “금융환경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제258호 (2006).
- 민상기, 설원식, “자원과 전략을 고려한 겸업은행의 성과프리미엄 연구 -유럽 5개국 은행을 중심으로-”, 국제경영연구, 제9권 제2호(1999), pp. 1-34.
- 민상기, 강신애, 설원식,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이 유입된 은행의 특성 및 성과 분석 -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1호(2007), pp. 308-328.
- 박광우, 박현성, “은행대형화와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 방안”, 금융안정연구, 제8권 별호(2007), pp. 96-153.
- 박형근, 이상진, 김보성, “금융환경 변화와 은행의 금융중개 역할”, 한국은행, 한은조사연구, 2006-17(2006)
- 신진영, 이민환, “대형화·겸업화와 예금보험제도의 과제”, 금융안정연구, 제8권 별호 (2007), pp. 48-95.
- Boyd, J. and S. Graham, 1986, Risk, Regulation and Bank Holding Company Expansion into Nonbanking, *Quarterly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pp. 2-17.
- Boyd, J., S. Graham, and R. Hewitt, 1993, Bank Holding Company Mergers with Non-Bank Financial Firms: Effects on the Risk of Fail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7, pp. 43-63.
- Boyd, J., G. Hanweck, and P. Pithyachariyakul, 1980, Bank Holding Company Diversification, In: Proceedings from a Conference on Bank Structure and Competition,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pp. 105-120.
- Carter, D. and J. McNulty, 2005, Deregulation,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Business-Lending Performance of Large and Small Bank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9, pp. 1113-1130.
- Demsetz, R. and P. Strahan, 1997, Diversification, Size and Risk at Bank Holding Companie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9, pp. 300-313.
- DeYoung, R. and K. P. Roland, 2001, Product Mix and Earnings Volatility at Commercial Banks: Evidence from a Degree of Total Leverage Model,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10, pp. 54-84.
- Diamond, D., 1984,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Delegated Monitoring, *Review of Economic Studies* 51, pp. 393-414.

- Fama, E. and K. French, 2002, The Equity Premium, *Journal of Finance* 57, pp. 637-659.
- Fama, E. and J. MacBeth, 1973, Risk, Return and Equilibrium: Empirical Tes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pp. 607-636.
- Gallo, J., V. Apilado, and J. Kolari, 1996, Commercial Bank Mutual Fund Activities: Implications for Bank Risk and Profitability,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0, pp. 1775-1791.
- Kwan, S., 1998, Securities Activities by Commercial Banking Firms' Section 20 Subsidiaries: Risk, Return and Diversification Benefits,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No. 98-10*.
- Kwast, M., 1989, The Impact of Underwriting and Dealing on Bank Returns and Risk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3, pp. 101-125.
- La Porta, R., F. Lopez-de-Silanes, A. Shleifer, and R. Vishny, 1998, Law and Fin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 pp. 1113-1155.
- Lepetit, L., E. Nys, P. Rous, and A. Tarazi, 2008, Bank Income Structure and Risk: An Empirical Analysis of European Bank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32, pp. 1452-1467.
- Stiroh, K. J., 2004, Diversification in Banking: Is Noninterest Income the Answer?,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36, pp. 853-882.
- Stiroh, K. J. and A. Rumble, 2006, The Dark Side of Diversification: The Case of US Financial Holding Companie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30, pp. 2131-2161.

<부록 1> 표본은행의 법계통별, 규모별 현황

법계통	소형은행	대형은행	계
영미법계(english)	301	551	852
프랑스법계(french)	603	570	1,173
독일법계(german)	366	304	670
스칸디나비아법계(scandinavian)	62	44	106
사회주의(socialist)	407	112	519
계	1,677	1,643	3,320

<부록 2> 표본은행의 국가별 현황

해당 국가	
영미법계(852)	AUSTRALIA(29), CANADA(18), HONG KONG(12), INDIA(60), IRELAND(9), ISRAEL(11), KENYA(8), MALAYSIA(41), NEW ZEALAND(6), NIGERIA(32), PAKISTAN(21), SINGAPORE(13), SOUTH AFRICA(11), SRI LANKA(8), THAILAND(17), UNITED KINGDOM(56), USA(500)
프랑스법계(1173)	ARGENTINA(58), BELGIUM(41), BRAZIL(115), CHILE(28), COLOMBIA(31), EQUATORIAL GUINEA(1), FRANCE(208), GREECE(22), INDONESIA(59), ITALY(164), JORDAN(4), LUXEMBOURG(128), MEXICO(34), NETHERLANDS(18), PANAMA(25), PERU(22), PHILIPPINES(32), PORTUGAL(21), SPAIN(87), TURKEY(23), URUGUAY(21), VENEZUELA(31)
독일법계(670)	AUSTRIA(60), GERMANY(220), JAPAN(144), KOREA(28), SWITZERLAND(181), TAIWAN(37)
스칸디나비아법계(106)	DENMARK(58), FINLAND(9), NORWAY(18), SWEDEN(21)
사회주의법계(519)	BOLIVIA(12), BOSNIA(9), BULGARIA(10), CHINA(18), CZECH(18), HUNGARY(7), KAZAKHSTAN(7), LATVIA(12), LITHUANIA(7), POLAND(43), ROMANIA(17), RUSSIA(263), SLOVAKIA(15), SLOVENIA(13), UKRAINE(25), VIETNAM(20)

주: ( )내는 표본은행수.

<부록 3> 변수별 산출방식

		산 출 방 식	변수명
경영특성지표	대형화	총자산규모 = $\log(\text{총자산})$	LOGTA
		총자산증가율 = $\frac{TA_t - TA_{t-1}}{TA_{t-1}} \times 100$	GWTA
	겸업화	비이자수익비율 = $\frac{\text{비이자수익}}{\text{영업수익}} \times 100$	NONII
	영업구조	대출비율 = $\frac{\text{대출}}{\text{총자산}} \times 100$	LOAN
		예금비율 = $\frac{\text{예금}}{\text{총자산}} \times 100$	DEPOSIT
		인건비비율 = $\frac{\text{인건비}}{\text{총자산}} \times 100$	PEREX
		순이자마진 = $\frac{\text{이자수익} - \text{이자비용}}{\text{운용자산}} \times 100$	NIM
	경영성과지표	자본적정성	자기자본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산}} \times 100$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비율 = $\frac{\text{대손충당금}}{\text{대출}} \times 100$	LLP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자기자본평균잔}} \times 100$	ROE
리스크지표	수지변동성	ROE의 표준편차	SDROE
	부도가능성	$ADZ = (100 + \text{average ROE}) / SDROE$	ADZ

<부록 4> 설명변수간 상관관계

	LOGTA	GWTA	NONII	LOAN	DEPOSIT	PEREX	NIM
LOGTA	1.000						
GWTA	-0.176	1.000					
NONII	-0.116	0.091	1.000				
LOAN	0.088	-0.060	-0.359	1.000			
DEPOSIT	0.141	-0.211	-0.150	0.052	1.000		
PEREX	-0.338	0.073	0.362	-0.077	-0.196	1.000	
NIM	-0.261	0.138	-0.212	0.132	-0.218	0.460	1.00

주: LOGTA는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GWTA는 총자산의 증가율. NONII는 영업수익대비 비이자수익 비율. LOAN은 총자산대비 대출비율. DEPOSIT은 총자산대비 예금비율. PEREX는 총자산대비 인건비비율. NIM은 이자부문 운용자산대비 이자이익.

## **Diversification and Bank Performance: International Evidence from 66 Countries**

**Jae Hwa Lee**

*Bank of Korea*

**Byungjin Kwak**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Kwangwoo Park**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Rae Soo Park\***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Abstract**

The deregulation in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makes commercial banks around the world face increased competition and change their managerial activities tremendously. A banks' typical reaction to the new environment is to widen the range of their products and services, i.e., diversification of income sources. As a result, the ratio of bank's non-interest income to operating revenue increases in many countries. Many studies ques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change on bank's performance and risk. Especially, supervisory authorities concern about this issue for the safety and soundness of the banking system. Prior studies, mostly based on US banks, on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non-interest income on bank's performance and risk show mixed results. Some studies show that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and a potential for risk reduction can be obtained by non-bank activities, but others report that there exists some increase in volatility of accounting returns and risk.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diversification on bank performance and risk by analyzing 3,220 banks from 66 countries. We find that diversification may improve bank's capital adequacy, and earnings performance, but deteriorate the asset quality and increase the volatility of earnings and default risk. It appears that the non-interest income from various activities may be more volatile than interest income and banks may be less cautious to manage their asset compared to the interest focused activity.

*Keywords:* Commercial Bank; Diversification; Non-interest Income; Bank Performance; Risk

---

\* Corresponding Author. Address: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40-742; E-mail: rs00@sm.ac.kr; Tel: +82-2-2077-7382; Fax: +82-2-710-9527.